

## NATO의 동유럽 병력 증강 결의, 그 의미와 여파

김철민 교수  
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

### ■ 주요 내용

- 7월 9일, NATO 정상회의에서 NATO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결의함
- 러시아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번 NATO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함
- 이번 NATO 결의에 대해 역내 정치와 맞물려 회원국 내 불협화음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, 향후 회원국 간 단절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임

## 1

## 이슈 현황

**7월 9일, NATO 정상회의에서 NATO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병력 파병을 결의하였음.**

- 7월 9일(현지시각),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,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28개 NATO 회원국 정상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,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‘폴란드’를 비롯해 발트 3국인 ‘에스토니아’, ‘리투아니아’, ‘라트비아’ 등 동유럽 국가들에 4,000여 명 약 4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음.
- 이중 미국은 폴란드에 1,000명 파병, 영국은 650명, 독일은 500명을 파병할 계획임.
  - 여러 회원국 출신으로 구성될 4개 대대는 2017년 파병을 전제로, 미국과 캐나다, 영국, 독일이 주요 국가로 1개 대대씩을 지휘하고,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순환 배치될 계획임.
  - 장갑차 같은 이동 장비를 갖춘 보병대로 예상되는 이들 부대가 공격받을 경우, 며칠 내에 후방에 자리한 NATO의 신속 대응군 5,0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.
- 더불어, 각 회원국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국 국내총생산(GDP)의 2%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함.
- 또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(MD) 시스템, 즉 스페인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루마니아 미사일 방어 기지 등의 통제권을 나토가 갖는 방안을 승인.
  - 현재 국방비에 미국은 GDP 대비 3.6%를, 영국과 폴란드는 2%를 넘게 지출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1.8%, 독일은 1.2%만 쓰고 있음.

**러시아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미국 등 서구의 이번 NATO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함.**

- 알렉산더 그루시코(Alexander Grushko) NATO 주재 러시아 대사는 BBC에 “NATO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철의 장막을 세우는 것으로, 양 지역 간 대립의 소용돌이를 부를 위험성이 지극히 내포되어 있다”고 반발하였음.
- 콘스탄틴 코사초프(Konstantin Kosachov)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“NATO의 결정은 베를린 장벽 이후 양 진영 간의 새로운 두 번째 장벽을 세운 것”이라고 비난함.

- 서구에 우호적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(Mikhail Gorbachov) 전 소련 대통령 또한 “NATO는 방어만을 얘기하고 있지만, 실지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밝힌 것이다”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음.
- 러시아 외무부 역시 7월 10일 성명을 통해 “NATO는 계속해서 일종의 군사-정치적 ‘거울 나라(looking-glass world)’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. 유럽의 평화와 안정과는 반대로 나토는 존재하지도 않는 동방(러시아)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.”고 주장함.

## 2

## 원인과 분석

☒ NATO의 이번 동유럽 병력 증대 결정은 26년 만에 최대 규모로, 그 배경은 러시아가 EU 동진 정책에 반발하여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면서 촉발됨.

- 러시아는 유럽을 향한 자국의 중요한 이해영역(Interest Sphere) 지역이자 완충지대(Buffer Zone)인 우크라이나를 향한 EU 확대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,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하면서 미국 등 서구와 갈등을 빚어 왔음.
  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을 무력 병합한 이후, NATO는 러시아와의 모든 군사 및 민간 협력을 중단함.
  -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 제재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 경제는 더욱 타격을 받음.

☒ NATO-러시아 간 긴장 확대와 군사 훈련 강화

- NATO는 폴란드 등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군사 훈련을 강화함.
  - 2015년 들어 NATO의 본격적인 전력증강 가시화가 이루어짐.
    - 2015년 6월, 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NATO는 회원국 방어를 위한 신속 대응군 규모 확대를 논의하고, 9월 비(非)회원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 속에 정상 회담에서 전격 결의함.
    - NATO의 신속 대응군 규모가 1만 3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됨.
  - 2015년 6월, NATO는 폴란드, 루마니아와 발트 3국에서 19개국 1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는 ‘연합 방패(Allied Shield)’ 훈련을 실시함.
    - 10월부터 11월까지엔 유럽과 캐나다에서 30여 개국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, 2002년 이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음.

-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, 발트 해 주변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영토를 통해 발트연안국과 루마니아, 불가리아 등으로 NATO 병력을 이동시키는 '세이버 스트라이크'(Saber Strike) 훈련이 진행됨.
- 이 훈련에는 미국과 13개 NATO 동맹국 병력 1만 명이 참가하였음.
- 2016년 6월, 발트 해 연안에서 15개 NATO 회원국과 스웨덴, 핀란드 등이 참여하는 정례 해상 훈련인 '발톱스'(Baltops) 훈련을 시작함.
- 이 훈련에는 6,000여 명의 병력과 50여 척의 함정, 60여 대의 공군기 등이 참여함.
- 이와 함께, 폴란드에서 NATO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등 24개국 3만 천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'아나콘다(Anaconda)' 훈련을 진행하였음.
- 이번 훈련에는 미군 해병대의 유럽 상륙작전도 시행됨.
- 러시아 또한 동유럽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확대하고, NATO에 대응하는 대규모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보임.
- 2015년 8월, 북해 함대 소속 병력 8만여 명을 동원해 북극 지역 작전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.
- NATO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, 서부 국경 지역에 3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힘.
- 2016년 7월, 장거리 핵미사일 부대들로 구성된 전략미사일군이 대규모 훈련에 돌입함.
-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'토폴'과 미국의 MD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'토폴-M'과 '야르스' 등의 발사대를 포함한 약 400여 대의 각종 대규모 장비가 훈련에 투입되었음.

## NATO의 Two Track 전략 - '군사적 억지력 확보'와 '대화'

- '군사적 억지력 확보' 전략 측면
  -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을 결정한 이번 NATO 정상 회담 결의가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막는 인계 철선 역할을 할 것이며,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 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됨.
  - NATO의 이번 동유럽 병력 배치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- '대화' 전략 측면
  - NATO는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군사적 대치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함.
  - 무엇보다도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이러한 관계가 가능하도록 행동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.
- 하지만, 러시아는 NATO가 실재하지 않는 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동유럽 지역으로 군사력을 확대하면서

동진(東進)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.

- 또한 이는 NATO가 유럽에서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, 서구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'신냉전(New Cold War)'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함.

### 3 전망과 시사점

**☒ 러시아를 겨냥한 이번 NATO 결의에 대해 역내 정치와 맞물려 회원국 내 불협화음이 발생할 조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 따라서 회원국 간 단결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주요 관심사임.**

- 러시아와의 교착 상태를 조속히 끝내기 바라는 그리스 그리고 동유럽 지역보다는 대서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랑스 등은 이번 NATO 정상 회의 결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.
  -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, 러시아와의 협상 제안과 함께 파병이 순수 방어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함.
- 반면,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동유럽 국가들은 NATO의 이번 결정을 강력 지지하며 회원국 간 단합을 요청하였음.
- 더불어 러시아에 강경한 영국의 EU 탈퇴가 NATO의 안보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기도 함.

**☒ 브렉시트(Brexit) 이후, 영국은 NATO의 강력한 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희망하였음.**

- 하지만 향후 안보 동맹의 균열은 피하기가 어려우며, 따라서 브렉시트 결정은 '러시아 대외 정책의 큰 승리'라고 평가받고 있음.

**☒ 7월 13일, NATO의 동유럽 병력 증강 결정 이후 가진 NATO-러시아 회담은 양측 간 심각한 이견만 노출하였음.**

- 이날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을 놓고 진행된 2014년 회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임.
- 앞으로도 이어질 양측 간 고위급 회담의 성과 도출 여부가 본 국제적 사안과 관련된 향후 전망의

핵심 요소임.

- 지난 4월 회담 추진 실패 이후 힘들게 열린 NATO와 러시아 간 대사급 회담 자리(브뤼셀)에서 러시아는 발틱 상공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측 공군기들의 우발적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정 장치 확보를 언급하며 자신의 뒷마당(동유럽과 발트 3국)에 행해지는 NATO의 병력 증강과 대규모 훈련들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음.
- NATO와 러시아는 1990년대 옛 소련이 붕괴한 후 동유럽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유럽의 러시아 접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상호 약속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 합의가 깨어진 상황임. NATO와 러시아는 서로가 먼저 약속을 깨었다며 비난함.
  - NATO는 1997년 러시아와 ‘NATO-러시아 기본법’ 조약을 맺고, 2002년 양측 간 협의체를 수립하였음. 이에 따르면 NATO는 동유럽 국가들에 항구적인 기지를 둘 수 없게 되어있음.
  - 하지만, 폴란드 등 러시아 위협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은 NATO 군사기지를 자국에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고, 러시아 위협에 대비한 NATO의 이번 동유럽 병력 증강 결정은 그 단초가 되고 있음. 러시아는 양자 간 기본법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NATO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 불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- 반면, NATO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을 위해 맺은 ‘민스크 협정(Minsk Agreement)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NATO의 군사 훈련은 지속될 것이라 주장함.
  - 2014년 9월,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 민스크(Minsk)에서 맺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‘민스크 협정’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과 불법 무장 단체와 군사 장비를 비롯해 모든 군인 및 용병을 철수시킬 것 등 평화 이행을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, 계속된 협정 위반과 약속 미이행으로 평화 정착이 되지 않았음.
  -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 2015년 4월, 당사자인 러시아, 우크라이나 그리고 NATO를 대표하여 프랑스, 독일 등 4개국 정상에 참여하여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내전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의 평화안에 합의함.
  -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(親)러시아 반군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동부 전선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이뤄지는 등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. NATO는 그 배경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
**▶ 신냉전 상황의 지속으로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걸쳐 ‘냉전 2.0’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.**

- NATO와 러시아 간 양측의 가파른 대립이 해결 기미를 못 찾고 계속 격화하면서 신냉전 상황의

전반적 확대를 의미하는 ‘냉전 2.0’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.

- 2015년 11월,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NATO 회원국인 터키의 F-16 전투기가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(SU)-24 전투기를 격추하였음.
  - 한동안 양측은 러시아 전투기의 터키 영공 침범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으며, 2016년 6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짐.
  - NATO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함.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NATO의 동유럽 전력증강 계획 및 흑해 지역 안보 기여 등 NATO에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음.
  -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국 외교관과 러시아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인 이후, 미국이 7월 8일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함. 이에 맞서 러시아도 미국 대사관 2명을 추방하며 맞대응하였음.
  - 2016년 5월, NATO는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몬테네그로를 29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결정함. 발칸반도에 자리한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임. 이번 확대는 7번째로 1949년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NATO는 옛 동유럽 공산 국가들로 회원국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.
  - 2016년 5월, 미국은 MD 계획의 일환으로 구축해온 루마니아 내 요격 미사일 기지를 본격 가동하고, 동시에 폴란드에도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 MD 기지 건설 공사 착공식을 진행함.
  -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, 일본,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 촉발. 중국 내 시민들의 애플 스마트폰과 KFC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공개적 불매 운동 및 저항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.
- NATO의 유럽 MD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(THAAD)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음.
- 유럽에서의 NATO와 러시아 간 긴장 관계 확대에 이어, 아시아 전역에서도 미국, 일본과 중국 간 갈등 및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가 반복되는 등 끝 모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현재 ‘제3차 세계대전’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. **EMERiCs**

#### 출처

Bloomberg, “Brexit Doesn’t Mean NATO Can Stop Worrying About Russia”, 2016. 7. 6

<http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6-07-05/more-tensions-brewing-between-putin-and-nato>

NATO OTAN, “NATO Secretary General welcomes frank and open discussions in NATO-Russia Council”, 2016. 7. 13, [http://www.nato.int/cps/en/natohq/news\\_134100.htm](http://www.nato.int/cps/en/natohq/news_134100.htm)

Politico, “NATO-Russia talks ‘not a meeting of the minds,’ says alliance chief”, 2016. 7. 13.

<http://www.politico.eu/article/nato-russia-talks-not-a-meeting-of-the-minds-says-alliance-chief/>

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, “Russian Anxiety Over Montenegro's NATO Accession”, 2016, 6, 26,

<http://www.rferl.org/content/russia-montenegro-nato-accession/27821224.html>

theguardian, “Will Nato’s warmer words prevent a new cold war?”, 2016. 7. 11,

<https://www.theguardian.com/commentisfree/2016/jul/11/nato-new-cold-war-russia>